

#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 (녹) 연중 제 24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고집 센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중개하시는 아드님의 공로로,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위해서도 교회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2,7-11.13-14

<주님께서서는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화답송** 시편 51(50),3-4.12-13.17과 19(◎ 루카 15,18 참조)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1,12-17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2코린 5,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2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영성체송** 시편 36(35),8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영성체 후 묵상**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첫째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 교황님 기도지향 - 9 월 ]



#### 복음화 지향 : 사형제도 폐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형제도가 모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제 16 차 세계주교시노드 소개 15 회 - 의정부교구가 경험한 시노달리타스 ♣

지난 1월 15일 본당 시노달리타스 팀 연수에 참석한 마석성당 이순일 마리아 자매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자매는 본당에서 교육분과장을 3년째 맡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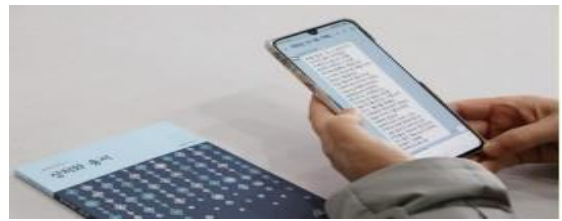
마리아 자매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본당의 모든 활동이 위축돼있던 지난해 1월, 본당 신자들이 기쁘게 소통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무엇이든 안 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책 읽기 모임'이었습니다.

마리아 자매는 생각이 정리되자 주임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은 이 제안을 기쁘게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매 미사 때 이 모임을 공지하셨습니다. 자매도 빨간 동백꽃을 새겨 넣은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게시하며 신자들의 참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신자들의 첫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한 명만 신청해도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 드디어 한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구역에 사는 신자 어르신이 구역 활성화를 위해 함께해보자는 응답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역 신자들이 하나둘 모여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재밌다.'는 입소문이 나자 다른 이들도 찾아오면서 한 팀이 더 생겼습니다. 지금은 2개 팀 16명이 "책 읽는 언니들"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읽을 책은 주임 신부님이 직접 선정하시거나 감수하십니다. 신부님은 이 모임의 최대 후원자십니다. 참여하는 이들의 연령은 40대에서 80대까지 다양합니다. 가끔 감상문을 써주는 이들 덕에 나눔이 풍요로워지는데, 감상문은 담백하고 진솔합니다. "함께 좋은 내용의 책을 읽으며 그동안 내 안에 저장돼있던 것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느꼈고, 책이라는 물을 통해 메말랐던 신앙이 생명을 되찾은 것 같아요."

마리아 자매는 여러 모임에서 책 읽기 모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반 모임에서도 독서가 신자들 간에 좋은 소통 수단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석성당의 책읽기 모임은 다들 모이기 꺼리는 시기에 신자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숙선하여 찾은 좋은 사례입니다.



| 연중 제 24 주일 복음 묵상 |

내 마음의 성경  
한구절



'돌아온 탕자', 구에르치노 작

너의 저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루카 15,32).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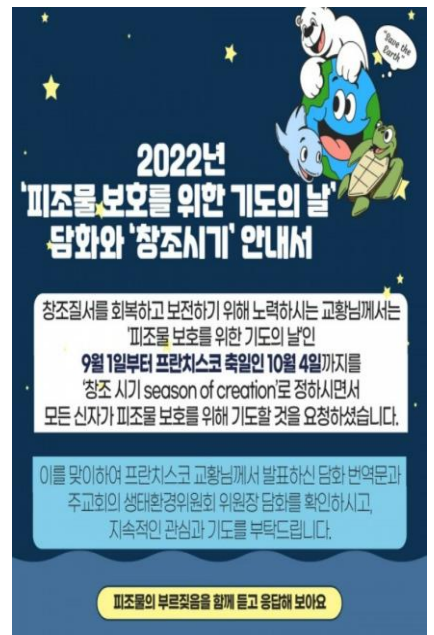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창조시기 (9월 1일 - 10월 4일) 기념 방법**

창조시기는 기념과 회개와 결의를 통하여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또 해마다 있는 교회 일치 시기로, 그리스도교 가족으로서 우리 공동의 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기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시기 에큐메니컬 네트워크는 몇 가지 방법을 다음처럼 제시합니다. 각 교파가 독창적으로 주도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방법과 캠페인에 관한 자료는 모두 [SeasonofCreation.org](http://SeasonofCreation.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진과 동영상
- 소셜 미디어와 블로그 (#SeasonofCreation 라는 해시태그 달기)
- 기도와 예배
- 창조시기 독서와 설교 자료
- 에큐메니컬 (Ecumenical) 기도회 개최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2) - 교회의 발전: 박해와 순교의 역사**

그리스도교 초기 3 세기는 잔혹한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입문하기가 어려웠지만 동시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맞선 증거자들, 즉 순교자들의 피의 땃가로 그 기초를 다지던 시기였습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은 그리스도교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 신앙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기존의 신앙인들에게도 배교의 누를 범하지 않고 더욱 신앙에 투철하도록 하는 자극 및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은 첫번째 순교자라 할 수 있는 스테파노의 순교 이야기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생생하게 상기시켰던 스테파노의 순교는 교회의 맨 처음의 전파와 바울로의 회개를 가져왔습니다.

초기의 교부들 역시 박해의 시기를 살면서 순교의 의미를 강조하였고, 실제 많은 교부들이 순교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교부들은 특히 가현론자에 반대하여 순교로써 그리스도 죽음의 실재성이 드러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거슬러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는 순교자 안에 현존하는 하느님에게서 유래하며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순교는 제 2 의 세례요 (떼르툴리아누스), 순교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완덕에 이른 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그리스도의 씨앗"이라는 떼르툴리아누스의 말은 역사를 통해 진리로 증명되었습니다. <출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세계주교시노드 제 16 차 정기총회 대륙별 단계에 관한 보도자료**

세계주교시노드 제 16 차 정기총회 대륙별 단계에 관한 기자회견이 2022년 8월 26일(금)에 진행 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대륙별 단계에 관한 소개와 함께, 2022년 8월 15일까지 각국 주교회의가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로 제출한 개별 교회 단계의 종합 의견서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가 첫 번째 단계를 마무리하며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종합 의견서들을 다섯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륙별 단계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2022년 10월 말-11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보기 - 좌측 이미지 클릭]





| 연중 제 24 주일 주간실천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7가지 손쉬운 방법 ⑬**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로 고통받는  
못 생명들을 기억하며 쓰레기 만들지 않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④**

오늘 하루동안 내가 아낀  
탄소발자국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Laudato Si(찬미 받으소서)!"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 뉴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교황님의 당부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담화에서  
"피조물들의 비통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자"고 호소하셨습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입문 5]  
구약성경 스토리텔링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목차 속에 답이 있다

**바오로딸 복스앤미디어**  
바오로딸 수녀들의 시노달리타스  
퀴즈퀴즈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8월 28일	성인 30 아이 11	9월 4일	성인 56 아이 27
--------	-------------	-------	-------------

□ 우리들의 정성 (9월 3일(토)~9일(금))

구민식	권묘순	김요한	김천주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진윤기			

교무금 \$695 (13 가정) 봉헌금 \$336 / Father's Day Appeal 모금액 \$45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9월 11일, 연중 제 24 주일) 이상명 다니엘, 이명진 이사악

(9월 18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주정자 루치아, 허준 안토니오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1일) 루카반 → (18일) 요한반 → (25일) 마르코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매월 첫째주 식사) : (18일, 다과) 요한반 → (10월 2일, 식사) 루카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난 주일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후 행사와 Father's Day 행사를 위해 봉사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지난 주일 Father's Day Appeal 에 정성스런 봉헌을 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순교자 성월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28>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